

1. 사업 개요

2017 년 6 월 24 일~25 일 양일간 올랜도 플로리다(Orlando Airport Marriott Lakeside)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 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이 열렸다. 미시간, 중서부, 남서부, 워싱턴, 북가주,동북부, 콜로라도,중남부,동남부 총 9 개 지역에서 25 명의 차세대 (미국출생 혹은 1.5 세)교사들이 참여하였다.

2. 강사진 및 강의 내용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3 분의 강사들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첫번째 오승연강사는 '차세대 교사의 활성화를 통해 발전하는 한국학교'라는 제목으로 차세대 교사로서 2 세 이상의 한국학교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임지현강사는 '좋은 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교사 ,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는 교사가 될 것을 강조하는 강의를 하였다.

세번째, 황정숙 강사는 '활동 중심의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다양한 수업 활동의 응용과 개발을 강조한 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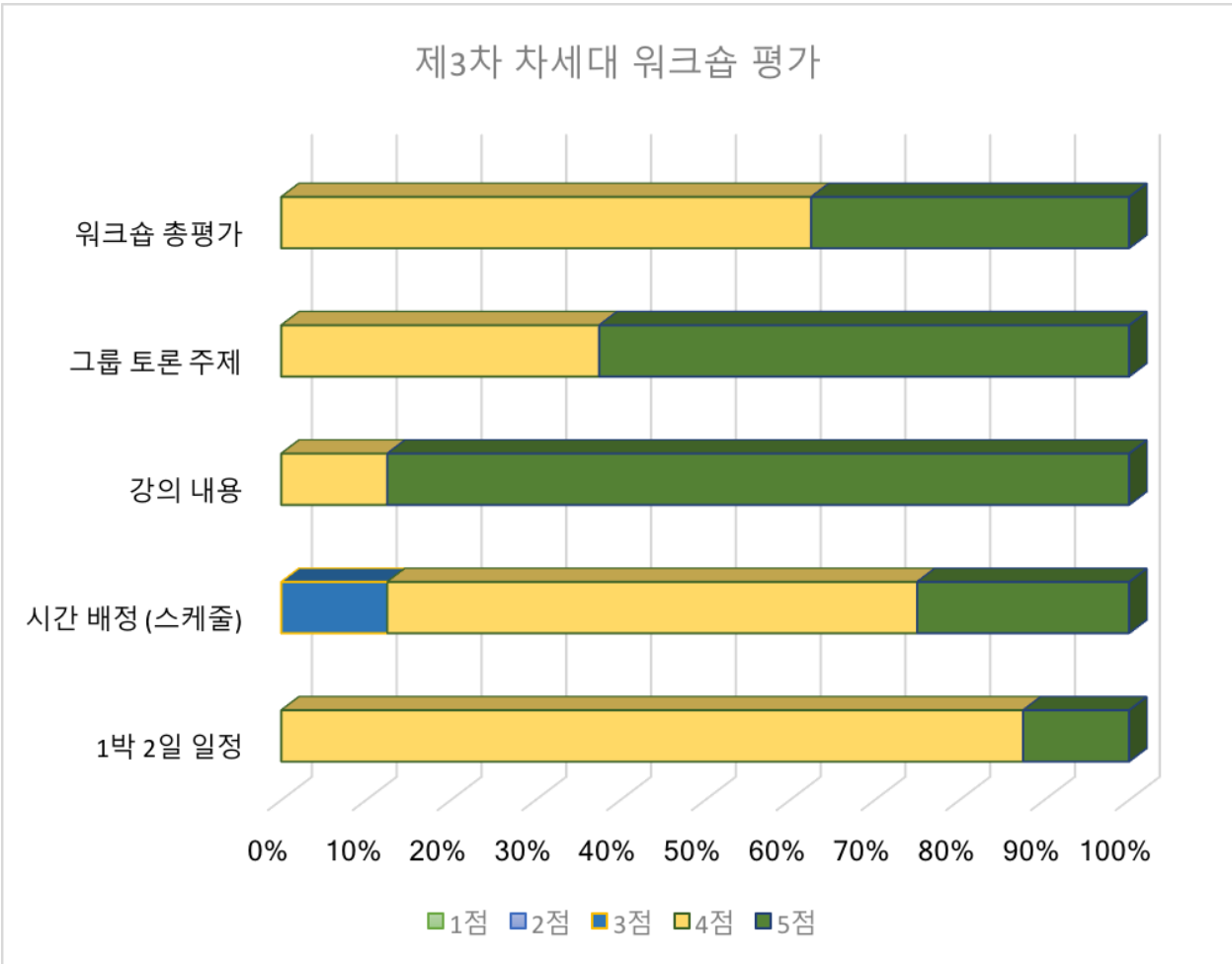
3. 소그룹 토의

'차세대 교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라는 주제로 차세대 교사들과 강사, 멘토 선생님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의 기회를 확대하고 차세대들의 특수한 경험과 재능을 근간으로 한국학교에서의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4. 사업 정리

이번 워크숍에서 차세대 교사 간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차세대 교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학습 활동의 내용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가한 교사들이 각 지역의 학교로 돌아가 차세대 주니어 보조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5. 제 3 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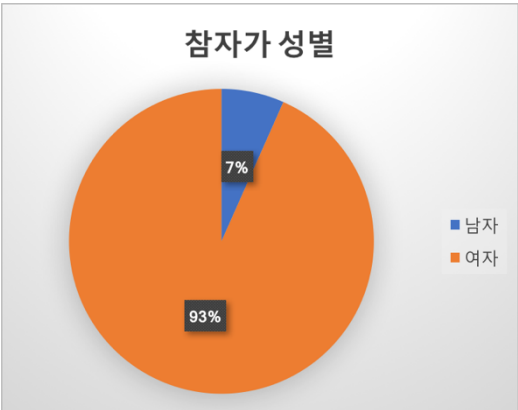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에 대한 총평은 만족 60% 매우 만족 40%로 총 합 100%로 긍정적 반응의 결과가 있었다. 그 밖의 토론 주제의 적절성, 강의 내용, 스케줄, 일정의 평가에서도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볼 수 있으며, 기타 의견으로 워크숍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6. 제 3 차 차세대 교사 보고서

제 3 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93%가 여성으로 성비가 고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한국학교의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일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차세대교사의 연령은 30 대, 40 대, 50 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차세대”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참석 교사들 모두가 20 대 혹은 그 이전의 나이에 (혹은 태어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1.5-2 세대이며, 일선에서 이민 1.5 세대 이상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면에서는 “차세대”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았다.

이들 중 40%는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 경력이 3 년 미만으로 이러한 차세대 워크숍을 통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들 중 약 20%는 한국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6 년 이상으로 많은 경험이 있었으나, 이들 또한 차세대 워크숍의 강의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일선 한국학교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라 할 지라도,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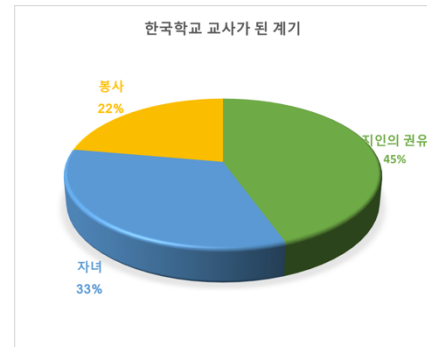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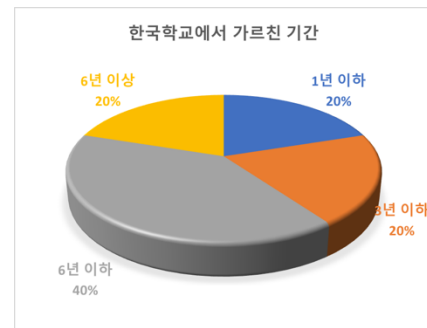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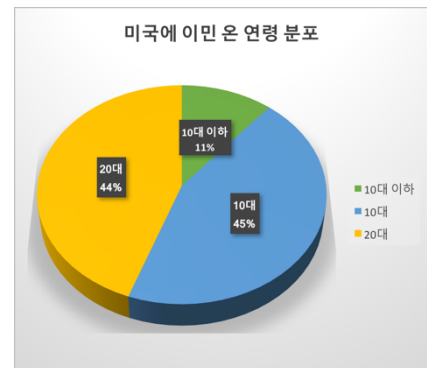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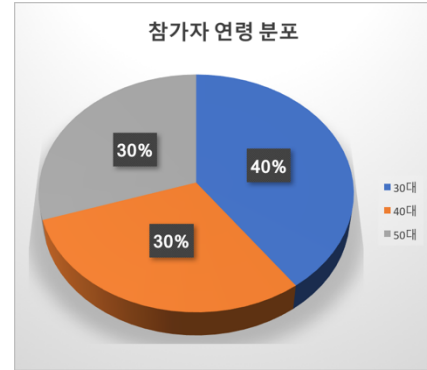
이들이 한국학교 교사가 된 계기를 살펴보면, 순수 봉사를 위해 교사가 된 경우는 20%이며, 그 외의 경우는 지인의 권유와 자녀가 한국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교사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한국학교의 교사 수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차세대 교사 워크숍’과 같은 좀 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교사들이 속한 학교들 대부분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쓰고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거나,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교사들이 스스로 진단한 ‘차세대 교사로서의 한계’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1) 한국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르치기 힘들다 2) 한국어 문법이 취약하다. 이외에도, 한자어와 고사성어 부분의 취약성,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 등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차세대 교사 워크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이라 생각이 된다.

차세대 교사들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나 한국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1) 더 많은 교사 연수의 기회와 미국 현지에 맞는 자료의 공급 2) 이민 2 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한국 홍보 및 소통 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외에도 선생님 봉사로 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 위에서 지적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 한국학교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7. 제 3 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마치며.



이번 제 3 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은 플로리다 지역 차세대 교사를 중심으로 훌륭한 강사진과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가지 시간적 제안으로 인한 뻘뻘한 스케줄과 1 박 2 일의 짧은 기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워크숍처럼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워크숍인 경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2 박 3 일의 기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워크숍일 경우 토요일 오후 2 시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늘려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워크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차세대 교사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도록 하기 위해, 차세대 교사들과 미리 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많은 차세대 교사들이 교사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미국 상황에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런 차세대 교사 워크숍의 기회를 늘려 차세대 교사 양성 및 지원에 좀더 힘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한다.